

1

인력육성 및 역량강화

소득비교

경영체에 따라
소득 큰 차이

6,515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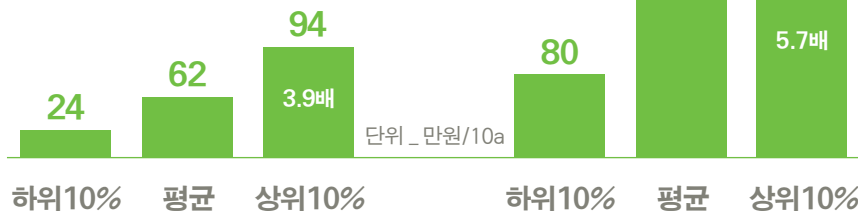


한국농수산대 졸업생

6,195만원



100대 기업 근로자



창업지원

농어업인
교육



2,500명

- 창업활성화를 통해 젊은
농어업경영인 양성(매년 2,500명)
- 국내시장조사 등을 통한 신규품목
개발 및 재배방법 등 정보제공
 - 농어업계 학생대상 1:1전문가
(선도농가, 교수 등)멘토링 실시
 - 40대 이하에게 농지장기임대사업
우선 지원(500호)



100개소

- 농어업인의 수준에 맞는 실습형
교육강화
- 선진기술획득을 위한 네덜란드
PTC+형 실습교육장 확충
(‘15:100개소)
 - 역량진단을 통한 평생
교육이력관리시스템 구축(‘12~)

세계와 경쟁하는
정예농업인 집중 육성

학교교육



2개 실습시설지원

- 이론위주의 교과과정을 현장실습 위조로 개편
- 전문 교과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지원(2개소)
 - 선도 농어업인의 겸임교사제 활성화

2

귀농 · 귀촌 활성화

추진 배경

베이비 부머 은퇴 본격화 및 귀농 · 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

베이비 부머

55~63년생

우리나라
전체 인구의

14.6%

대도시 거주
베이비 부머농어촌
이주 희망

66.3%

귀농 · 귀촌 현황

880호

2001

1,240호

2005

4,067호

2010

• 빈집 부동산(한국자산관리공사)

주택정보

• 지자체

일자리
정보귀농 · 귀촌
종합센터

www.returnfarm.com

귀농 · 귀촌 시뮬레이션

귀농정보

- 귀농교육(민간, 지자체 등)
- 농업경영(농진청, 기술센터)
- 농산물 유통(유통공사 등)

농촌체험
정보

- 농촌관광포탈(농어촌공사)
- 팜스테이(농협)

농지
농기계

• 농지은행, 지자체 농기계 임대 사업소

준비 단계

실행 · 정착
단계

지원 방식

교육

120명

- 귀농 · 귀촌 전문상담사 양성(120명)
- 귀농인 현장 실습 교육 실시(2,000명)

지원

880억원

- 농지 · 주택구입, 시설 건립 등 창업기반 마련(정부, 880억원)
- 주택수리비, 이주지원비, 창업보조금 등(지자체, 100억원)
-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, 농지 취득세 50% 감면

홍보

PR

- 언론사 · 민간 · 지자체가 참여하는 귀농 · 귀촌 페스티벌(6월)
- 언론 매체 활용, 귀농 · 귀촌 프로그램 방송 및 우수 사례집 제작 배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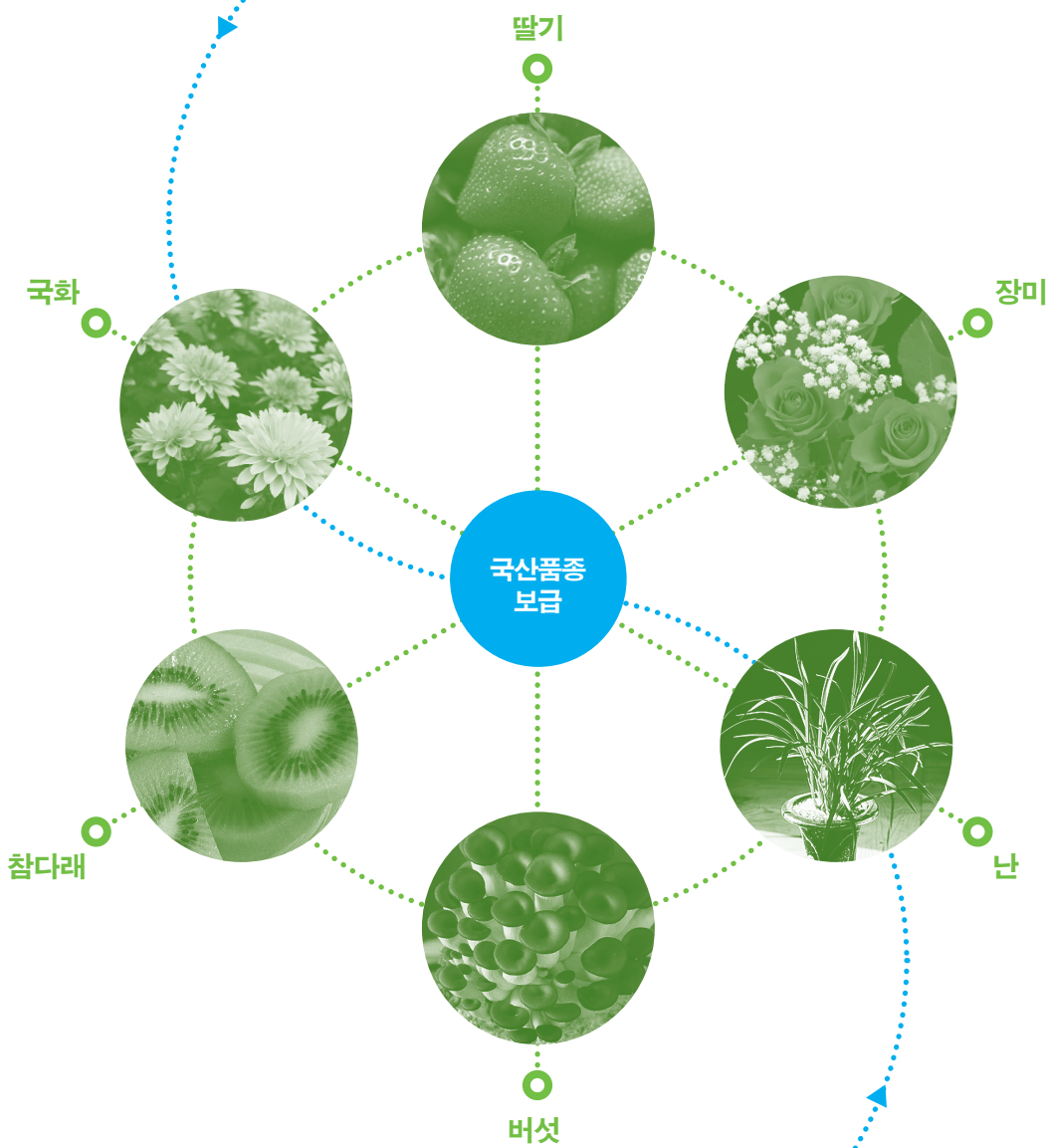
Golden Seed Project

- ‘Golden Seed Project’ 추진(‘12~’21년, 4,911억원)으로 20개 전략 품목의 수출용 종자개발

글로벌
수출종자

4,911억원

- 민간육종연구단지(Seed Valley) 조성, 방사선육종센터 설립, 분야별 연구팀(5개)을 구성 · 운영



6개

- 대상 품목 : 딸기, 국화, 참다래, 버섯, 장미, 난 등 6개 작물

63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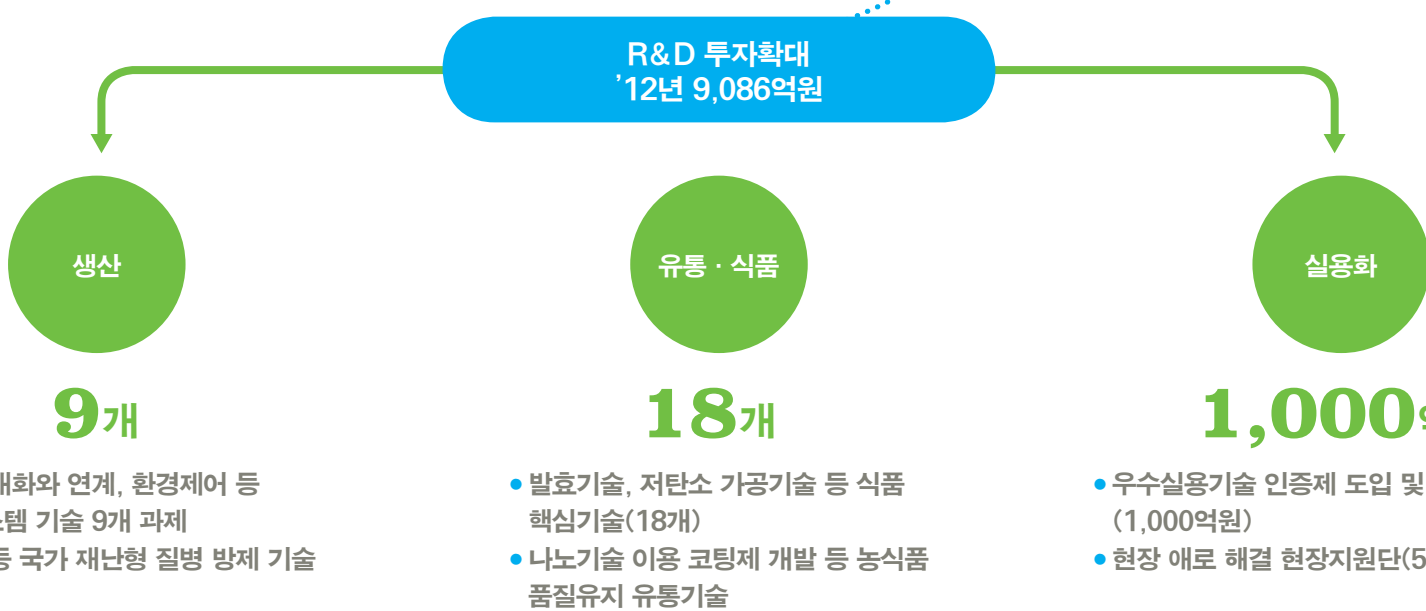
- 수입종자 대체를 위한 ‘로열티 대응사업단 운영’ (‘12 : 63억원)

68→70

- 국산품종 보급 : (‘11) 딸기 68%, 국화 20, 참다래 15 → (‘12) 70, 23, 20

28→30

- 해외적응성 시험 : (‘11) 5개국 28개 품종 → (‘12) 6개국 30개 품종



- 시설 현대화와 연계, 환경제어 등 첨단시스템 기술 9개 과제
-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질병 방제 기술

- 발효기술, 저탄소 가공기술 등 식품 핵심기술(18개)
- 나노기술 이용 코팅제 개발 등 농식품 품질유지 유통기술

- 우수실용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사업화 지원 (1,000억원)
- 현장 애로 해결 현장지원단(50개)구성 ·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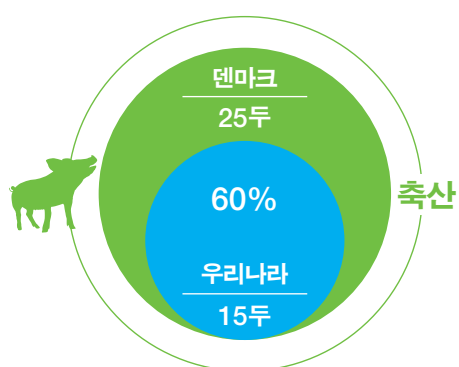
시설 현대화

필요성

낙후된 시설은 생산성 저하, 질병 발생 빈도 증가 등 경쟁력 제약의 근본원인
농어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, 중국·일본 등을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급선무

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나, 현재 지원방식·규모(연간2,450억원)로는 10조원 규모 시설 현대화에 40년 이상 소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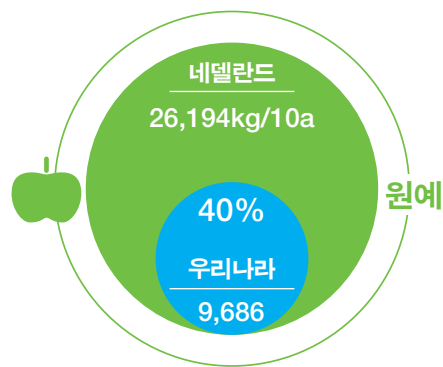
MSY



선진국 대비 60%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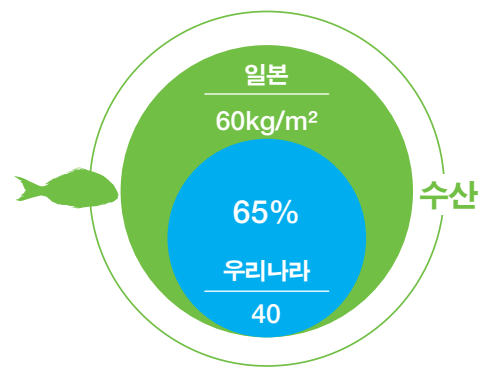
• MSY(Marketed pigs per sow per year) :
어미돼지 1두당 연간 새끼돼지 출하두수

파프리카 생산성



선진국 대비 40%수준

참돔 생산성



선진국 대비 65%수준

세부계획

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 지원

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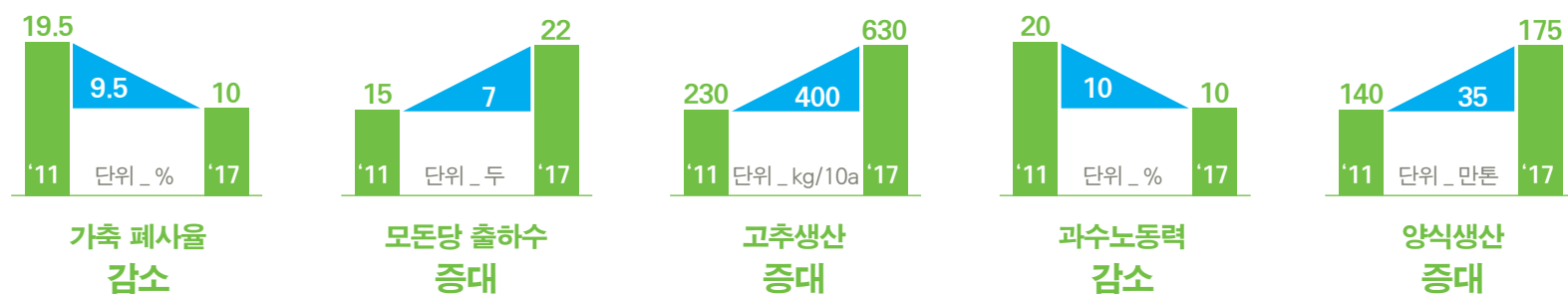
- 경영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융자로 전환, 이차보전 방식으로 추진
- 농신보 제도 개선 확대 등으로 원활한 정책자금 공급

지원 방식

- 이차 보전 방식을 통해 지원규모 및 수혜자 대폭 확대
- 가족농 : 현행 지원방식(보조+융자)
- 법인 등 대규모 경영체 : 장기 저리 융자지원
- 경영능력과 사업성이 검증된 전업 농어가 중심으로 지원, 악성부채 증가 방지

기대효과

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달성

사례
(예시)

하림 종돈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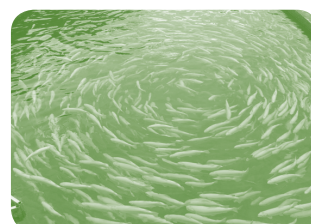
- 최적의 환기시설
- 분뇨 스크랩 시설
- 자동사료공급

농산무역



- 환경제어 시스템(온도, 습도 등)
- 에너지 절감형 난방

금호양식장



- 양식장 수조 개량
- 자동사료공급
- 사육환경관리시스템

5

농식품 수출확대

\$ 12 → 18억달러

- 고급매장 연계, 상류층 집중 공략 | 인삼, 버섯, 해삼
- 서부내륙 신시장 개척

중국

상류층 집중 공략

일본

\$ 23 → 30억달러

- 중소도시 판촉 확대 | 토마토, 막걸리, 버섯
- 식품 안전성 집중 홍보

미국

\$ 6 → 8억달러

- 교포 중심의 시장에서 현지인 마켓으로의 진입 확대

아세안

\$ 10 → 14억달러

- 국가별 선호품목 지원강화 | 베트남(인삼), 말레이시아(단감 · 딸기) 등

베트남(인삼)

말레이시아(단감 · 딸기)

전략품목 육성(25개)



인삼

기능성 제품개발,
약리작용 인식 개선



파프리카

수출단지 조성,
검역협상(중국)



토마토

품종개발,
시설 · 재배면적 확대



막걸리

품질 개선 및 표준화,
소비층 확대



김

김 가공제품 개발,
김 식문화 확산



전복

다양한 가공제품 개발,
양식면적 확대

수출 지원 확대

수출선도조직(18개) · 수출협의회(17개) 활용
과당 경쟁 방지(체크프라이스)

대중국 수출전진기지 건설('12년말, 청도)

박람회(38회), 바이어 초청(500명) 및
시장 조사 강화

'12년 100억불 목표 달성에 총력

6

고소득 농어업 경영체 육성

31천개

10만개

2011

2015

매출액 1억원 이상
매출 경영체 10만개 육성

1,400개

5,000개

2011

2015

마을단위 경영체
5,000개 육성

- 망고, 아보카도 등 新소득 작물 도입
- 신규 양식 품목에 대한 사업화 모델 개발, 첨단
종묘 배양장 설치, 양식장 적지 조사 등
- 품목별 재배 지침서 작성 · 보급



신규 품목
발굴 · 육성

10

- 농림수산자원에서
기능성 신물질 및
의약소재 개발
-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
바이오 연료 및 산업화
소재 상품화
- 고부가가치 10대
바이오 소재 프로젝트
추진



고부가가치
제품 개발

고소득
농어업 경영체
육성



전문 교육과정
운영

100개소

- '14년까지 20대
전략 품목의 수출유도와
산업화를 위한 단계별
교육과정 개발
- 농어업인 경영능력 향상을
위해 자생적 학습조직
100개소 육성



맞춤형 지원체계
구축

20천호

- 창업 · 전업 · 시설현대화 농어업인 등을 중심으로 핵심 경영체
선발 · 육성(매년 20천호)
- 경영체 자산 및 위험관리를 위한 1:1 금융컨설팅 지원 강화
- 농어업 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신보 고액보증심사시스템 개발

신성장 산업 육성



말산업

5개년

- '말산업 육성법'('11)에
따라 말산업을 레저산업,
농외소득원 등으로
활용하기 위한 '말산업
육성 5개년 계획' 수립
('12년 상반기)
- 특구지정, 승마시설 확충
등 말산업 육성을 위한
기반 마련



곤충산업

50억원

- 기능성 소재개발 등을
위한 '지역곤충자원
산업화 지원센터' 건립
지원('12~'14, 1개소,
총 50억원)



양잠산업

8개소

- 전문교육을 통한
인력 양성, 양잠산물
저온유통시설('12년, 8
개소), 양잠산물종합단지
('12~, 3개소) 조성



관상어
산업

560백만원

- 관상어 품종개량, 기능성
용품개발* 등을 위한
R&D 확대(560백만원)
- 관상어산업 지원을 위한
법률안 마련(12월)

7

직불제 확충 및 내실화

직불제 확충으로 농어가 소득지원 강화

발농업 및 조건불리 수산직불제

조건불리, 경관보전 및 친환경농업직불제

40만원/ha

| 발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식량확보를 위해 도입

- 식량자금을 제고를 위해 생산유지 · 증가가 필요한 품목* 대상
- 지급단가는 ha당 40만원으로 책정
- ‘발농업 직불제’ 신규 도입을 위해 관련규정 마련 및 직불금 집행 · 관리 등 이행점검체계 구축(5월)

신규도입

제도개선

50km

| 조건불리지역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도입

- 육지로부터 50km이상 떨어진 도서내 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

수산직불제

발농업직불제

농가소득안정 직불제

19+15

| 도상연습(‘10~’12년)을 지속하면서 발농업 직불제 도입 등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방향 재검토

- 3차 도상연습(5~12월) 확대 실시 (2차 19개 + 15개 내외, 44개 읍 · 면, 1만호)

직불제 확충 및 내실화

109천 ha

|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지역(‘12~’16년) 재선정(1월, 400여 법정리 순증 예상)

조건불리지역 직불제

경관보전 직불제

2→1

| 실질적인 경관개선을 위해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체계 개선(1월)

- 경관효과를 고려, 경관 전문가가 사업대상지를 사전심사 선정
- 직불금 지급방식 단일화(2회 → 1), 경관작물 재배 이행조건 강화 (주기적 점검) 등

친환경농업 직불제

50%

| 유기 · 무농약 인증 직불금 지급단가를 50% 수준 인상